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2월 23일(금)

(음력 1월 8일)

Пятница

23 февраля 2018г.

№ 7(11677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2월 23일은 러시아 조국수호자의 날이다.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조국수호자의 날 기념

2월 23일은 러시아 조국수호자의 날이다. 이를 앞두고 지난 21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센터에서 기념공연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주로 참전용사, 장병들, 공식인사들이 찾았다.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지사는 명절과 러시아 군사제도의 100주년을 축하하고 참전장병들의 용맹과 기개를 자랑스럽게 치하하며 덧붙여 사할린주 정부는 군사와 법무부 산하기관들에게 필요한 지원으로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는 이미 주택 150세대를 공급했고 1/4분기에 60세대(그중 30세대는 쉬코탄섬에서)를 더 공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올해 군장병들을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150세대의 주택을 완공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공적을 세운 군장병들과 구조원들에게 주지사가 주정부의 표창장을 수여한 후 화려한 공연으로 마무리했다.

조국수호자의 날을 맞아 관련 행사들이 여러 문화기관들에서 펼쳐진다. (본사기자)

사할린한인 기록물 입수 문제로

지 난 20일(화) 한국 행정안전부와 거 사 관련 업무지원단 대항쟁기 피해조사 연구 과 김 영 숙 대외협력 1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행안부 대표단의 방문 목적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유골봉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도착한 날 대표단은 김홍지 주한인노인회 회장과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간담회를 가져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21일 오전에 대표단은 사할린주 정부에서 주경제개발부 이리나 필라예와 차관, 러시아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사할린주역사문서보관소 세르게이 차로즈킨 소장 등과 만나 사할린한인동포



에 관한 기록물 입수 문제를 자세하게 논의했다. 기록물 입수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러시아법으로 보관 기간과 접근제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단은 21일 오후에 더 구체적인 논의로 주 역사문서보관소와 주 개인기록물보존소 관계자와 만났다. 기록물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팀은 3월에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의 유골봉환사업에 올해도 사할린한인 측에서는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이 위탁을 받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배순신기자)

단신

사할린학생 20명 평창올림픽 방문

2월 20일(화) 사할린주의 6개 구역을 대표하는 학교 학생 20명과 인솔교사 2명이 한국 강원도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영어와 리더십을 고려하여 후보 60여명 중에서 선정되었다. 이들의 방문은 2016년 9월 말에 사할린주 교육부와 한국 강원도교육청 간 교육교류 및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사할린 학생교류단은 4박일 5일 동안 홈스테이를 하며 한국의 생활문화를 접하고, 동해 북평고등학교와 묵호중학교를 방문, 동계올림픽 경기 중 컬링과 노르딕 경기들을 관람, 전통문화를 배우고 문화 탐방 (동해 천곡동굴과 서울 남산타워 등, 관광지)의 일정을 이어갔다.

올 9월에는 반대로 강원도의 학생교류단이 사할린을 방문할 계획이다.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총대표자회의 개최

러시아의 대표적인 고려인 단체인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회장 조 바실리)는 2월 25일 심페로폴리에서 제5회 대표자회의(초회)를 소집한다. 전러시아고려인 단체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 단체의 대표자회의 의정에는 2018년 본회 사업보고, 정관 수정사항, 구조변화, 운영위원 선거, 새 공동회원 가입, 기타 문제가 오른다고 본회의 김 왜체슬라브 사무총장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이 초대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올해 교사>콩쿠르 개최

현재 사할린주 내 여러 지방자치체들에서는 <올해의 우수 교사 2018>콩쿠르가 진행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지난 16일(금) 제1김나지아에서 개최되었다. 콩쿠르에는 교사 21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3그룹으로 나뉘어 <우수 교사>, <우수 학령전 교육기관 교육자>, <올해 교육계 입문, 교사 경력 3년 이하> 등에서 경쟁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다섯 부문의 과정(자기 소개, 교육방법론 세미나, 활동교실, 학과목 교육시간, 봉사 등 관련 교육프로젝트)을 통과하며 실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참가자 중 한국인의 성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젊은 교육자 중에는 제2김나지아의 알렉산드라 스미르노와 한국어 교사가 있다. 2월 26일에는 콩쿠르에서 선발된 우수교사를 발표한다.

독감 확산

사할린주에 독감과 급성 호흡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주내에 2300여 명이 호흡바이러스감염과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오하, 포로나이스크, 토마리 구역들에서는 역학의 임계점이 넘어갔다.

인플루엔자 AH3N2와 B로 7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인플루엔자AH3N2 같은 경우 거의 20년간 사할린에 없었는데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심각하게 앓고 있다. 고열과 두통, 불쾌감, 소화기관의 중독증상, 인후염, 유루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감과 급성호흡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해 13개 학교들에서 35개 학급이 수업을 중단했다. 그 중 돌린스크, 아니와, 포로나이스크 구역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일부 학교의 학급들, 그리고 오하구역 모든 8개 학교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급성호흡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독감과 급성호흡바이러스 발병으로 일부 대중행사도 취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예비교원들을 보내기 위해 사할린 한글학교 정보 수집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국립국어원은 작년 9-10월 2개월간 예비교원들을 사할린으로 파견해 실습기회를 지원했다.

지난 20일(화) 한국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한국어진흥과 김수현 학예연구사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국립국어원 연구사의 방문목적은 올해도 사할린에 예비교원파견 실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국립국어원은 꼭 해야 할 일 하나가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작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처음으로 사할린에 예비교원을 파견해서 실습을 했는데 이 사업을 국어원이 인하대학교에 위탁했습니다. 사할린에서 한국어 예비교원 학생들이 실습하는 곳은 코르사코브 한글학교와 유즈노사할린스크 김나지아였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 가능한 대로 사할린 한글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할린 한글학교를 방문해서 예비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방문목적입니다."라고 20일 저녁에 기자와 만난 김수현 학예연구사가 밝혔다.

김 연구사는 사업 범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사할린 한글학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과 함께 그는 21일부터 사할린한인단체들이 운영하는 한글학교를 돌아보고 있다.

이틀간의 방문 일정에는 아니와, 코르사코브, 홀스크, 돌린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등이다.

김 연구사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예비교원을 해외에 파견해 실습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어



교원 해외파견 지역은 일본 도쿄와 나고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이었다.

올해도 작년처럼 국립국어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같은 나라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범위를 넓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 도쿄 외각에서 좀 벗어나 동포가 많은 오사카까지를 포함해 예비교원을 파견할 생각이고 사할린도 한글학교 학생수에 대한 정보 확보에 따라 한국어 예비교원 파견 실습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립국어원 측은 더 많은 한글학교에 예비교원들을 보낼 생각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비교원들은 작년 처럼 9-10월에 파견할 예정인데 2차레로 10명 정도씩 1개월 기간으로 사할린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지방 한글학교들에서 실습을 하면 항상 한국어 교사 부족을 느낀 지방들에게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김수현 국어원 학예연구사는 한국 젊은이들이 사할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예비교원 해외 실습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파견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더 일찍이 널리 알리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더군다나 파견으로 다녀간 예비교원 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렸고 사할린을 다녀간 학생 대다수도 역시 설문지에 사할린에 한번 더 가고 싶다는 소견을 적었다고 한다.

사할린 방문 시 김수현 연구사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 황명희 소장, 사할린국립대 한국어 교수 임 엘위라, 코르네예와 이나 등과도 면담했다.

한편 대학원 때 고려인과 고려말을 논문의 주제로 삼은 김수현 연구사는 10여년 전에 사할린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다. 고려인 역사와 형태를 잘 아는 그는 사할린한인의 아픈 역사도 잘 알고 있다. 동포의 실태를 잘 아는 분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외동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국립국어원이 추진하는 한국어 예비교원 파견 해외 실습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순신기자)

오래전부터 사할린에 와보고 싶어 했던 최 아니타 2월 1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연

2월 중순에 러시아 극동 순회 공연을 시작한 러시아 인기가수 최 아니타가 지난 18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연을 가졌다. 약속한 대로 아니타는 10/20 쇼를 사할린 관객들에게 펼쳐보였다.

20은 가수 활동한 지 20주년, 10은 그 동안 10번째 쇼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연한 최 아니타 가수는 이번 공연이 아주 소중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사할린 방문을 희망했었고 더군다나 친척 중 사할린 출신이 있어서 관심이 더욱더 컸다고 한다.

18일 사할린공연 관객들은 주로 동포들로 이에 최 아니타 가수는 매우 반가워했다.

공연은 아리랑 노래로 시작되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최 아니타 가수는 역시 민족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특별히 사할린한인들이 공연을 찾은 것에 대해서 아니타는 감사와 기쁨을 표했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쇼는 화려하고 디나미컬했다. 무엇보다 가수가 진심을 담아 관객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모습이 좋았다. 필자는 최 아니타 가수의 팬은 아니나 이날 최 가수의 열정과 노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거의 쉬지 않고 모든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꿈을 이루자하는 그녀의 생각이 전달이 되었다. 그는 10/20 쇼로는 이미 73개 도시를 돌아다녔다 한다. 각 곳에서 그녀는 현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그의 삶을 응원한다.

이번 사할린쇼에서 소개된 주인공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휠체어를 탄 워토리야 장애인이었다. 워토리야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다들 감탄했다.

이번 쇼를 위해 아니타는 아티스트, 가수, 무용수, 스텝 등 27명으로 구성된 그룹과 함께 사할린에 왔다. 너무 멀고 너무 비싸고 돈을 벌지 못했지만 사할린에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는 최 아니타는 운 것 만으로 만족스럽다고 했다.

아니타는 사할린에 딱 하루만 머물렀다. 물론 제대로 관광하지도 못했지만 사할린의 흰 눈과 자연에 반했다고 한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그녀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에 참관했다. 물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국가대표선수들을 보내지 못한 데에 많이 아쉬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 올림픽 애국가를 작사 작곡했다.

잘 아시다시피 아니타는 공연에서 주로 자작곡의 노래만 한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10/20쇼를 직접 연출하고 총감독으로 나서고 있다. 이 쇼는 수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아니타의 다음 공연이 기대 된다.
(배순신기자)



이 모 저 모

<승리>전쟁기념관에 새 전시관 개관

2월 15일 <포베다(승리)>전쟁기념관에서<20-21세기에 국지전에서 사할린 사람들>란 새 전시관 개막식이 있었다.

개관식에는 아프가니스탄, 북 오세티아, 체즈나, 다게스탄과 타지키스탄, 다만스키 섬 전투의 참전용사들과 사회단체 대표자들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 전시관은 독특했다. 군사적 충돌로 찢기며 불타는 지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지구는 전시관의 상징으로서 그 어떤 표현들보다 설득력이 더 크다.

전시관의 방문객들은 사할린의 참전용사들이 어느 전쟁에 참가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물건들과 전시품들은 러시아 동포들의 삶과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다.

전시물의 대다수는 참전용사들이 직접 기념관에 기증한 물품들로 조성되었다.

В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открылся новый зал

15 февраля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экспозиционного зала "Сахалинцы в лок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ах XX-XXI веков".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участник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Афганистане, северной Осетии, Чечне, Дагестане и Таджикистане, на острове Даман-

ск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более 200 гостей.

Новая экспозиция уникальна. Сразу привлекает внимание пылающий земной шар, разрываемый от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ов. Он как символ экспозиции, красноречивее любых слов.

Посетив зал, можно узнать о том, в каки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сахалинцы. Предметы и экспонаты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быте и жизни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ольшинство предметов передано в музе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частникам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전 시베리아 학생경시대회 결승 단계 진행

주 중앙도시에서 전 시베리아 학생경시대회의 결승 단계가 시작되었다. 올 학기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처음으로 전 러시아의 일류 경시대회를 치르기 위한 진행장으로 선정되었다.

2월 18일 제2리체학교에서 지식 경쟁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결승대회에 진출한 학생들 11명은 4시간 동안 어려운 수학(2급 경시대회) 문제를 풀어야 했다. 다음 단계의 과목은 3월 4일 생물, 3월 11일은 물리, 3월 18일은 화학 경시대회의 결승이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교육관리국에 따르면 학생들의 시험지는 채점을 받기 위해 노위시비르스크로 발송된다고 한다. 경시대회 우승자들은 노보시비르스크의 학술도시인 아카뎜고로독에서 진행하는 하계학교에 초대되고 학업 결과에 따라 고학년 학생들은 노위시비르스크 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학센터에 입학할 수 있다.

전 시베리아 물리수학경시대회는 1962년에 과학아카데미 회원 미하일 알렉세예비치 라브렌치예브의 발의로 개최되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경시대회는 전 연방이 참가하고 나중에는 전 러시아 학생경시대회의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대회는 처음엔 물리수학 경시대회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과목의 목록이 확대되었다. 현재 해마다 7-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정보학 경시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승자와 수상자들은 러시아 대학 입학 시 특혜가 주어진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ходят финальные туры всесибир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чалась серия финальных туров всесибир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В этом учебном г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первые вошел в число очных площадок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естижного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состязания.

18 февраля на базе лицея №2 прошел первый этап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11 финалистам отборочного тура предстояло в течение четырех часов выполнить сложные задания по математике (олимпиада второго уровня). Следующий этап состоится 4 марта по биологии. 11 марта пройдет олимпиада по физике, 18 марта — по химии.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департаменте образ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боты школьников отправляют в Новосибирск на проверку.

(8면에 계속)

즐거움음력설맞이

주한인회: 어르신들을 위주로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가져

지난 16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회 주최로 전통적인 설맞이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명절은 75세 이상 어르신 80여 명을 모시고 지방 한인회장, 주 민족단체장, 1년 내내 주 한인회를 협조하고 협력한 민간인들과 단체 대표들, 주 및 시정부 대표 등이 함께 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설 명절의 축하 자리에는 사할린한인들과 주정부 이성철 행정부 실장, 사할린 주두마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러시아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황명희 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관 류이찌 히라노 총영사, 러시아 민족아삼블레야 사르키즈 아코판 사할린지 부장이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주인으로 행사를 연 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은 "전통에 따라 설날을 가족끼리, 친지, 친구들끼리 맞이합니다. 이 풍습을 지켜오면서 우리는 오늘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이 명절은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며 축사를 올렸다.

사할린주지사의 명절 축사는 이성철 주정부 행정부 실장이 대독한 후 자신의 소회를 말했다. "이 자리에서 스승도 만났고 그리고 학교 선생으로 활동했을 때 가르치던 제자들을 만나니 기분이 더욱더 좋다. 기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행사장을 찾아온 손님들은 정성껏 차려진 상에 앉아 다채로운 한복을 입은 <에트노스> 어린 학생들로부터 새해 큰 절을 받았다.

전통에 따라 사할린주 한인노인회 김홍지 회장이 덕담을 하며 세뱃돈을 나눠주자 아이들은 조개춤을 선사했다.

축사를 한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황영희 소장, 주두마 하포츠킨 의장,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 사할린민족아삼블레야 사르키즈 아코판 회장 등은 사할린한인들이 한민족문화를 계승해 오면서 사할린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희 소장은 "금년 설날 명절에는 또 하나의 즐거운 축제가 있다."면서 "바로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데 동포 여러분들도 TV로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응원하시면서 지구촌 축제를 주최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천리 길은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고 큰 목표를 세우기를 기원했다.

이날 명절 공연은 <에트노스>학교 학생들의 즐거운 <조개춤>,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그룹의 포퍼먼스, 강팔용 동포가수·김동직 군·하미영 양 등의 축하 노래로 이어졌다.

공식 공연이 끝나자 이리나 마카렌코와 강팔용 가수가 신나는 노래를 불러주면서 실내에는 환기가 벌어졌다. 축사와 명절 공연으로 한껏 흥을 돋운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황금 개띠 무술년을 맞이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제3회 동양언어축제에 200여명 참가

지난 16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에서 제3회 동양언어축제가 펼쳐졌다. 이에 남부 사할린(아니와, 홈스크, 돌린스크 구역 포크로브카,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13개의 학교 학생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실력을 발휘하고 동양문화와 예술에서 경연을 펼치고 스포츠 실력도 보여주었다. 3년째 진행되는 축제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날 축제프로그램은 한국어와 일본어 경시대회, 주제별 도전게임, 음악경연대회, 시낭송 콘쿠르, 동양민속놀이(한국, 일본 등) 외에도 즐거운 스포츠 경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경연 과제로는 모교에서 동양언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동영상 촬영하는거였다.

창의성을 요하는 과제들을 학생들은 수행해냈다. 축제에 참가한 모든 학교팀들은 여러 부문의 상을 수상했는데 한국어와 관련한 팀들(홈스크, 포크로브카, 코르사코브 제2학교, 아니와, 제2김나지아, 제30학교, 크라스노고르스크 등)이 많았다. 올해 축제 대상(팀들의 모든 점수 합계)은 동양김나지아(교장 마리나 골라코와)가 받았다. 동양김나지아는 작년에도 수상 경력과 함께 올해 두 번째 상을 수상했다. 작년에는 코르사코브 제2학교가 대상을 수상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설맞이

크라스노고르스크 한인회는 2월 17일 전통적인 음력 설맞이를 <스카즈카>카페에서 진행했다. 이날 25명이 함께 모여 명절 상은 각자가 장만한 요리로 차려졌다. 이날 축사를 이경순 크라스노고르스크한인회 부회장이 했다. 김 비아나 학생은 어르신들에게 춤을 선사했다. 명절 행사를 찾아온 분들은 한복 차림을 하고 노래방 기구에 맞추어 마음껏 우리 민족 노래를 즐기며 춤도 추었다. 크라스노고르스크한인회는 이 행사를 후원한 주한인회(회장 박순옥)에 감사의 드린다고 전했다.

크라스노고르스크 한인회 회장 문종기



손님들에게 상품권 선사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도 16일(금) 저녁에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100명이 모인 가운데 1세분들이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기뻐했다. 이번에는 특히 크라스노폴리에서 온 손님들이 많았다. 각 입장권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어서 모두가 선물없이 행사장을 떠나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500루블리 상당의 상품권을 받으며 매우 기뻐했다.

짧은 공연은 <가르모니아>아동예술학교 학생들과 한글학교의 노래로 구성되었다. 이날 우글레고르스크시민들이 좋아하는 박 블라지미르 동포가수가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아냈다.

강복숙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장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стреча с писателем в музее

В Литературной гостиной музея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16 февраля прошла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 писателем Сергеем Яном.



Он поделился размышлениями о мире сегодняшнем и прошлом, судьб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ультурах народов, населяющих страны Азиатско -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В авторском исполнении на встрече прозвучали



фрагменты из путевых заметок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ёз», поэтического сборника «Тени цветов», повестей «Сон одинокого облака», «Слушая песни дождя».

В работе свободного микрофон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озаик Ирина Левитес,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алентина Малышева, и другие гости.

К мероприятию была оформлена тематическая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 – просмотр «На семи ветрах», посвящённая творчеству писателя. Во время автограф - сессии Сергей Ян вручил участникам встречи экземпляры своего поэтического сборника «Тихое счастье» (2014) с дарственной надписью за лучшие вопросы, заданные ему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свободного микрофона.

Российский писатель Сергей Ян -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лауреат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2г.). Он известен как автор стихотворений, повестей, путевых заметок, эссе. В его поэзии слышны отголоски восточной лирики, автор любит экспериментировать со свободным стихом. Основные мотивы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й в прозе – лирические откровения, в которых переплетаются радостные и печальные ноты бытия.

Партнерскую поддержку музею в организации встречи с писателем оказали: Сахалинское РО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Центр чт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УНБ.

Фестивалем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встретили Сольналь школьники



В день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ьнал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 базе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трет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С каждым годом фестиваль набирает силу и размах. В этом году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00 школьников из 13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строва

(Красногорск, Анива, Холмск, Корсаков, Покровка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 традиции ребята участвовали в олимпиаде по корейскому и японскому языкам, декламировали стихи, пели песни на восточных языках, танцевал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веселых стартах «Ступени Шаолин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баталии прошли в кругосветке-квесте «Через тернии к звездам».

В этот раз в качестве домашнего задания команды должны были снять видеоролик, где рассказывалось, как в их учебном заведении проходит изучени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В этот день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всех этих состязаний, а гран-при фестиваля заслуженно завоевала хозяйка –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тметили в ККЦ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встреч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ьналь, состоялс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тал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этот праздник – один из самых почитаемых и относится к числу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зимних праздников Кореи.

По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праздник всегда отмечается в кругу семьи и друзей. Соблюдая традиции, мы собрали в этом за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егодня этот праздник для вас. Счастья вам и здоровья, с Новым годом! - обратилась к собравшимся Пак Сун Ок.

Учащиеся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ханбок склонились перед зрителями в глубоком праздничном поклоне и получили новогодние подарки (сэбетон) от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Хон Ди.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празднов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ен Чер, мэр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Надсадин,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Хванг Менг Хи,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ирано Рюит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лочкин, глава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Саркис Акопя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др.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ен Чер зачитал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е письмо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а от себя добавил, что очень рад видеть в зале своего наставника, бывшего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 14 Пяк Л.П., а также своих бывших учеников.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своем поздравлении особо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сть хорошая корейская поговорка: «И дорога в 1000 ли начинается с одного шага». Я от всей души хочу пожелать вам, дорогие земляки, не бояться искать свой путь, выбирать большие цели и достигать их, - сказал мэр.

Выступающие отметили большую роль РООСК в сохранении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народа,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и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и пожелали процветания и счастья в новом году -

Торжественную часть продолжил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оллективы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группа «Ханыль» при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исполнители песен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ан Пал Ен, Ким Дон Дик, Ха Миен и т.д.

Вечер завершился песнями и танцами.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сетят Олимпиаду-2018

20 февраля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отправилась в Южную Корею. В нее вошли 20 ребят из шести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и двое педагогов.

Визит островной делегации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о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инистром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ей Мурашовой и начальник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Бьенхи Мин.

Островная делегация была сформирован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нкурсного отбора,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60 школьников из 12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В островную сборную вошли ребята, которые хорошо владеют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ом, обладают лидерскими качествами и ак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позицией. Кроме этого, у школьников оценивались твор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коммуникабельность и возможность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адаптации к иноязычной и инокультурной среде. Поездка школьников в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тала первой ласточкой масштабной программы обменов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ей Канвондо.

Программа визита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очень насыщена. Ю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будут жить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емьях, 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бытом и традициями этого наро-



да,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 корейск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посещать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выставочные комплексы. У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учителей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истемой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реи. Кроме того, ребята посетят XXIII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Пхёнчхане.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визита направлены на сближение молодеж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и установление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24 февраля островная делегация вернется на Сахалин. В сентябре корей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риедут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общило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овать давлению США в торговл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разил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несправедливых протекционистских мер, которые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принимает в отношении РК, а также её стремления пересмотреть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с РК.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о своими советниками и помощниками, состоявшейся 19 февра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дал указ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у принять решительные меры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Данная позиция указывает на готовность РК обратиться с жалобой в ВТО и рассмотреть действия США на момент наличия наруш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в случае, если давление Вашингтона в торговых вопросах будет признано необоснованными протекционистскими мерами. Мун Чжэ Ин также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ботать над расширением экспортных рынков с помощью актив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полит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казал, чт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чётко разделяет вопросы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облем и тему торгов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Нодон синмун»: Пхеньян «не жаждет» диалога с Вашингтоном

Пхеньян «не жаждет» диалога с Вашингтоном,- пишет в субботу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главный печатный орган СК. В статье также содержится критика в адрес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США Майкла Пенса за высказанный им скептицизм в отношен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ША должны помнить, что мы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ы к каждому шагу, который они сделают, будь то санкции, военные варианты или хитрые схемы», - говорится в статье.

В 2017 году умерли 3.800 граждан РК, имеющ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а Север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мерли 3.80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имеющ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а Севере, а за последние 30 лет их количество сократилось на 72.762 человека. В живых остались лишь 58.685 человек, и это люди весьма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и Обществ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почти четверть из них составляют люди старше 90 лет, а 65% относятся к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80 до 90 лет. Учитывая,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не проводятся, у них всё меньше шансов на встречу со своими близкими с Севера.

Суд признал вину государства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вируса MERS

Суд обязал государство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вспыш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ближневосточного респираторного синдрома MERS 2015 года. Тогда от двух переносчиков вируса были заражены десятки человек, находившихся в одной с ними больнице, а также контактировавших с заражёнными напрямую и косвенно. Среди них и 60-летний пациент по фамилии Ли. После выздоровления он подал в суд иск против государства, не сумевшее вовремя предотвратить эпидемию, требуя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его здоровью. Суд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счёл,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не несё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лучившееся. Однако, по итогам апелляционно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дела, суд посчитал,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имело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В частности,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меры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по первому заражённому пациенту были не достаточно оперативными. Тогда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отказался проводить диагностику в его отношении, отметив, что Бахрейн, где он побывал, не являлся мест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MERS. такж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не на должном уровне, что привело к затягиванию процессу выявления второго пациента, ставш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ем вируса. В итоге, суд обязал государство выплатить истцу 10 тыс. долларов.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как ожидается, повлияет на ход других подобных судебных дел.

Из Канады могут быть депортированы 150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150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осевших в Канаде, могут быть депортированы в связи с выявлением факта подделки ими документов при получе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е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телекомпания "Аль-Джазира".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многие из беженцев перебрались в Канаду из РК. Однако, в документах они указали, что прибыли в Канаду через Китай. В этой связи канадские власти ужесточили контроль, принимая меры по депортации таких беженцев.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с 2013 года из страны были выдворены 2 тыс. северян. (РКИ)

Шансы на победу: способствуют ли квоты росту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женщин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ло в № 6)
В 1995 году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31% женщин и 24% мужчин во время выборов в мест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собрания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женщин-кандидатов. По итогам еще одного опрос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женщины-избиратели охотнее поддерживают идею расшир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частия женщин, нежел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голосуют за женщин-кандидатов. Также важно учесть, что в силу действовавшего в стране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авторитарного режима культур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выборов была еще слабо развита. Чтобы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ть ситуацию с выдвижением женщин на выборах и их избираемостью требовались время, определен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литика и работ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бы помогали женщинам-кандидатам в период избирательных кампаний.

Еще в 1988 году Пэк Ёнок, сотрудница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женщин, провела опрос среди 800 избирателей относительно введения квот. Почти 54% мужчин и около 73% женщин высказались положительно о квотах для женщин. Годом позже аналогич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среди 2084 избирателей стар-

ше 20 ле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о еще 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системы квот: практически 79% респондентов поддержали квоты для мест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собраний, 90% — д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Положительная тенденция сохранилась и в 1990-е: в 1993 году половина из 524 респондентов высказалась в поддержку квот.
Введение квот поддержали и отдель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В 1990-е годы Партия за Новую Корею, Союз либеральных демократов,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нгресс за новую политик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выступили за расшир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частия женщин и проведение реформ, нацеленных на улучшение и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достижение гендерного равенства в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х областях.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и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нгресс за новую политику предложили ввести квоты и созда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орган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женской политики. Пока все эти предложения были не более чем идеями, которые требовалось реализовать в будущем. Но важно то, что феминистская риторика зазвучала в программах веду-

щ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страны, отражая тем самым актуальность вопросов женской политики д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Постепенно стали формироватьс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объединения, нацеленные на достижение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женщин в политике. В 1990-е годы тем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частия стала центральной для жен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Сформировались же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вившие своей целью, в частности, введение квот на выборах. В 1995 году же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требовали от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выдвинуть 20% женщин-кандидатов на выборах в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10% —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собрания провинций, городов-метрополий, столицы.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в ходе выборов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арламент звучали требования ввести 30-процентную квоту в одномандатных округах и 50-процентную — для кандидатов-женщин, избираемых по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е от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Наталья Ким,
Историк-востоковед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ерелетные люди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на Сахалине

супер скидка на проживание 15% для всех 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с 01/01 по 31/03

скидка действительна только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по тел.: 8(4242)498-400 И ЧЕРЕЗ E-MAIL: RESEPTION@GAGARINHOTEL.RU

Объявление

Женщина (65 лет) жела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ужчиной 1-ого поколени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 р.) без вредных привычек,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выезда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Контактный тел.: 89147605311, 89242804045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동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Предприя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ращивают добычу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январе. За это время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по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 79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ли 102,1 процен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73,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01 процент.

Добыча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составила 1,6 миллиона тонн. Прошлого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ревышен на 0,6 процента. На 11,1 процента увеличилась добыча газа (общий объем - 3,1 миллиарда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Еще более существенный рос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уголь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и добыли 566 тысяч тонн топлива, в 2,8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январе 2017 года.

У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СКТУ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составил 70 тысяч тонн, или 96,6 процента. Переработано 53,2 тысячи тонн, или 107,5 процента.

В январе 2018 года отменал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пара и горячей воды, консервов и пресервов рыбных, сыров и творога, мяса и субпродуктов,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мясных, масла сливочного, кондитерских изделий,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ставил 0,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рирост - 25,1 процента.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в 1,9 раза), яиц (в 1,3 раза), молока (на 7,2 процента). Выросло поголовь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на 6,5 процента), свиней (в 2 раза) и птицы (в 1,4 раза). Средний надой молока на одну корову увеличился на 8,7 процента.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блюдается рост объемов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на 2,3 процента), платных услуг населению (на 1,2 процента).оборо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вырос на 11,2 процента.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 0,6 процента, что ниже показателя января 2017 года на 0,1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Сахалинск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Дети войны» отменила пятилети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пятилетию со дня созд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ети войны», состоялось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16 февраля.

Со значимой датой организацию поздравил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сотрудники предприятий,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города и обла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спикер остров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 Война вошла в каждый дом, в каждую семью. Жизнь заставила рано повзрослеть детей войны, которые с малых лет уже шли работать, помогали в полях и дома, пока их отцы были на фронте. Дети войны в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общую победу нашей страны. Сегодня мы здес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еще раз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за это, — отметила Вера Щербин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зачитала приветственный адрес от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и вручила памятный подарок руководителю рег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ети войны» Валентину Мазуру. По его словам, региональные законы о детях войны сегодня приняты далеко не во всех субъектах РФ.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кой закон действует с 1 января 2016 года. И вместе с тем,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где также приняты аналогичные законы, признают, что у нас —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льгот и гарантий для детей войны, — отметил В.Мазур.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ети войны»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7 марта 2013 года. Инициатором и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ом ее создания стал участник учредительного съезда детей войны в Москве,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Лаврентьевич Петрухин.

Сегодня местные отде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Дети войны» работают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15 тысяч человек. Их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правлена на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е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 мая увеличивается размер минимальной оплаты труда

С учетом районных коэффициентов и северных надбавок он вырастет на 17,6 процентов. Работники юж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ей Сахалина должны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не менее 23442,3 рубля, Ногликского 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 29023,8 рубля, а на Курилах — не менее 31256,4 рубля.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офсоюз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повышении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оплаты труда (МРОТ) до уровня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с 1 мая 2018 года приня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Нововведение, которое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затронет вс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нее действовал собственный порядок регулирования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Дл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н носил обяз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профсоюз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ежегодно заключали об этом трехстороннее соглашение. Размер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а островах включал в себя район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и «северные» надбавки.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Ф постановил начислять эти коэффициенты и надбавки сверх МРОТ. С января 2018 года величина минимальной оплаты труда в стране составила 9489 рублей, 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 учетом коэффициентов и надбавок она выросла более чем на 30 процентов - от 19,9 до 26,5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йона.

—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сейчас вносятся необходимые поправки. С 1 мая увеличение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оплаты труда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должится до 11163 рублей и составит с применением надбавок и коэффициентов — от 23,4 до 31,3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результате,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регионе повысится более, чем на 50 процентов,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Олег Кожемяко.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ырастет денежное довольствие самых низкооплачиваемых работ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минималку». Кроме того, повысятся зарплаты и у боле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одатели пойдут на это,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дифференциацию в оплате труда для работников разного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и функционала.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нововведение, которое касается всех трудящихся — не только бюджетников, но и тех, кто занят во внебюджетном секторе экономики, - сказал Анатолий Крутченко,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союза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фсоюзов, - Стоить напомнить и о том, что на МРОТ завязаны многие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пособия и субсидии. Выдвинутая Президентом инициатива, которую поддержала Госдума, являет собой очередной значимый шаг на пути повыш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еред работниками.

Первых коров встретили на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в селе Троицкое

В область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доставили 222 коровы голштинской породы. Новоселы помогут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мплекса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который рассчитан на 1 900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Новичков разместили в корпусе, рассчитанном на 800 голов. Здесь используют стойл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беспривяз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у коров свободный доступ к кормам. Продумано всё до мелочей. Установлены поилки с подогревом и даже маятниковые щетки-чесалки. Первое потомство буренки дадут летом, сейчас они на разных сроках стельности.

Животных вырастили на ферме в селе Алексеевка Ханкайского района. В пути они находились четверо суток. Доставка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автотранспортом через паромную переправу Ванино-Холмск.

— Сейчас животные на карантине, он продлится 21 день. Их ждут ежедневный осмотр,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вакцины. Здесь созданы очень хорошие условия, подобного на Сахалине раньше не было,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БУ «Станция по борьбе с болезнями животных № 2» Юрий Баранов.

Компания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является резидентом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на двух площадках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еле Березняки вскоре приступят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омплекса ещё на 1,9 тысяч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А в Троицком молочное стадо до 1,9 тысяч голов будут наращивать в течение этого года. Здесь же возведут завод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олока.

— Будем добиваться максимального качества, автоматизации, чтобы на выходе получать качественный и вкусный продукт. Таких заводов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олока в России не больше пяти, —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управляющи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Богдан Хилько. — Мы планируем производить около 30 тысяч тонн молока в год, перерабатывая его на своих же мощностях.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ыдавать на прилавки сахалинцам готовый продукт. Здесь будет предприятие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полного цикла. К примеру, даже заготовку кормов будем ве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ся работа нацелена на то, чтобы завозить минимум из-за пределов области.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задач госпрограммы по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 насытить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качествен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Эта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ручениям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Более 40 команд подали заявки для участи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18»

Ежег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для любителей подледного лова в устье реки Найба состоятся 9 марта. В награду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получат кубки и денеж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По традиции будет отмечен и самый юный рыбак.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приурочен и конкурс детских рисунков. Сбор работ, а их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ее 300, завершился 20 февраля. Победителей определят в трёх номинациях: «Сахалин — рыбацкий край», «Мой папа — рыбо-

лов» («Мы — семья рыболовов») и «О рыбалке с юмором».

— Ранее мы подвели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ий логотип состязаний. Победил вариант Алексея Дружинина — снежинка из рыбы. На площадке будет зона селфи, где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сможет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на фоне эмблемы соревнований,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Горничных. — Ещё одно новшество -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готовить пойманную рыбу.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несколько точек с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омощь нам окажут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Соревнования, как и прежде, состоят из двух блоков. Первый — командные состязания, за отведенное время надо поймать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ыбы. Второй этап —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Участникам надо будет пройти через четыре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асположенные зоны лова.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нет тот, кто первым в каждой из них поймает по одной рыбе и пересечет финишную черту.

Отдельную площадку на месте проведения турнира выделяют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состязаниях,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содержать название команды, ФИО и год рожд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принимают по телефону: (4242) 23-34-66 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office@sktufar.ru.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можно будет и в день соревновани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еред старт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общедоступ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Лугово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Атлант».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здесь состоялись город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Метелица».

— Помещение большое, просторное и красивое, - оценила новостройку главный судья состязаний Людмила Кацук. — Места хватит всем. Я надеюсь, что в дальнейшем мы всегда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этом спорткомплексе.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зал площадью в 15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баскетболу, мини-футболу, волейболу, теннису, спортивно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и друг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Здесь созд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и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оврем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продуманная отопительная система позволяют поддерживать в помещениях оптимальную температуру даже в сильные морозы.

«Атлант» введен в строй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оступный спорт»,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ерии быстровозводим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конце 2017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ились два аналогичных комплекса: «Юниор» в микрорайоне № 25 и «Чемпион»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Новые объекты сразу завоевали популярность среди жителей прилегающих территорий.

— Благодаря новым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м залам сахалинцы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тренироваться вблизи от дома, - сказал во время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Атланта»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 Уверен,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не заставят себя ждать. На спортивном небосклоне появятся новые имена, и,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станет крепче здоровье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имают серьезные меры для развития массового спорта. Напомним,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ставил перед регионами страны задачу - увеличить долю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занимают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к 2020 году до 47 процентов.

В 2017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ведено 20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Среди них — девять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в се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и хоккейный корт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первая очередь биатлон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центр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Томари,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с плавательным бассейном в Поронайске. В итоге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195 тысяч спортсменов и физкультурников или 42,6 процента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звитие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должится и в 2018 году. Завершается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манежа, прокладка новых трасс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который по праву носит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троители приступили к возведению нового лед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созданию пеших троп, велодорожек. Такие некапитальные объекты, привлекающие для граждан с различным уровнем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читают в областном спортивном ведомстве, способствуют популяризаци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문화일반

러시아 소프라노 레즈네바 "바로크 음악은 재즈같아...조수미 존경"

세계 성악계에서 신성으로 떠오른 러시아 태생의 스타 소프라노 올리아 레즈네바(29)가 서울시향과 협연한다.

오는 22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올리아 레즈네바의 바로크 음악'이 무대에 오른다.

"천사 같은 아름다움"(뉴욕타임스), "흠잡을 데 없는 테크닉의 소유자"(가디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레즈네바는 청아한 음색과 화려한 테크닉이 강점이다. 독특하고 신비스런 외모도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성악과 피아노를 전공했고, 200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엘레나 오브라초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헨델과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지휘자 폴 굿윈(62)이 지휘봉을 드는 이날 공연 역시 헨델을 비롯 비발디, 퍼셀, 텔레만 등 평소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만나기 힘든 바로크 음악과 초기 고전 레퍼토리로 꾸며진다.

레즈네바는 헨델 오페라 '알렉산드로' 중 '사랑스런 고독이여'와 아리아 '대기여, 샘물이여', 그리고 '영혼에 빛나는' 등을 통해 기교를 뽐낸다. 비발디 오페라 '그리젤다' 중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 모차르트의 희극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 중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콘서트 아리아 '어찌 그대를 잊으리'도 선보인다.

내한공연에 앞서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레즈네바를 서면으로 먼저 만났다.

문: 사할린이 고향으로 안다. 그곳에는 한국 동포가 많다. 한국인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데뷔 무대를 갖는데,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해왔고, 이번 공연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나?

답: "사할린에서의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다! 한국 스타일의 예쁜 옷, 특히 드레스가 가득한 사할린의 옷가게가 생각이 난다. 사할린에서 모스크바로 이사 가던 일곱 살까지 한국에서 온 옷을 자주 입고 놀던 제 모습이 기억난다! 물론 초등학교 때 한국인 친구들도 많았다. 항상 예의바르고 친절히 웃어 주던 친구들이다. 이번 한국에서의 협연이 정말 기대가 되고, 시간이 허용되는 한 한국이라는 곳을 충분히 탐험하고 느끼고 돌아가고 싶다."

Q. 사할린은 역사적으로 슬픔이 많은 땅으로 안다. 한국인들에게도 안타까운 사연(일제강점기 강제 이주)이 있다. 안톤 체홉은 사할린을 '슬픔의 틈새'라고 표현했더라. 사할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당신이 이곳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나?

A. "사할린이라는 곳은 저에게는 슬프거나 우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일곱 살 때까지만 사할린에 살았기

때문이었지? 멋진 사람들과 친구들, 동료들, 저의 부모님, 엄청난 눈, 그리고 예쁜 한국 옷까지! 모든 것이 저에겐 재미있고 훌륭했다."

Q. 엘레나 오브라초바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은 당신에게 어떤 전환점이 됐나? 콩쿠르에는 많이 출전했나? 젊은 성악가에게 콩쿠르는 어떤 의미가 있나?

A. "처음에는 당시의 우승이 저의 모든 것처럼 다가왔다. 많은 응원을 받았고 곡 선정도 마음에 들었다. 학생일 때에는 공연할 기회가 거의 없지만 콩쿠르에 참가하면 중요한 심사위원과 관객들 앞에서 독주회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다. 그 경험이 성공적이어서 더욱 행복했다."

Q. 세계적인 성악가, 세계적인 미디어, 세계적인 공연장으로부터 호평과 관심을 받고 있나?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나?

A. "전 아직 어리고 먼 여정의 시작점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음악을 만들어나가고 연습하는 모든 순간을 즐긴다. 대학 시절 학교 공연장 데스크 위에 차이콥스키의 초상화와 함께 적혀있던 그의 명언이 생각난다. '가장 훌륭한 천재조차도 최고, 아니 평균조차 미치지 못한다, 일에 미쳐있지 않다면!'"

Q. 안토니오 파파노와 같은 명지휘자들과 함께 했다. 지휘자와 호흡을 맞출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플라시도 도밍고, 안나 네트렙코 등 거장 성악가들과도 함께 했는데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A "큰 영광이자 최고로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다. 도밍고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만났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하게 대해 주셨고, 마치 아버지처럼 모든 면에서 응원을 해주셨다. 실제로 같이 올랐던 헨델의 오페라 '타메르라노' 공연에서도 도밍고가 '바자제' 역이었고 제가 딸인 '아스테리아' 역이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안토니오 파파노도 현재 최고의 음악가 중 한 명이다. 그와 함께 공연할 때면 음악은 기적이 되고, 언제나 즐거운 경험으로 남는다. 파파노는 무슨 작품이라도 기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연이 가득한 음악이라도 즐겁게 연주해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Q. 특히 헨델 등 바로크 음악에 강한 것으로 안다. 이번 서울시향 데뷔 무대도 바로크가 중심을 이룬다. 바로크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가?

A. "어린 시절부터 바로크 음악을 아주 좋아했다. 세실리아 바르톨리의 '비바 비발디' 앨범부터 수많은 해석의 바흐



와 헨델의 오라토리오들을 듣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바로크 음악의 신선함은 제즈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리드미컬한 음악에 더해 즉흥연주까지, 바로 자유가 포함돼 있으니까. 마치 꿈속같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날고, 음악과 함께 나는 거다! 뛰어난 기교와 감성도 물론 필요하다."

Q. 이름을 아는 한국 소프라노가 있는지?

A. "소프라노 조수미를 존경한다. 특히 어린 그녀와 세실리아 바르톨리가 카라얀과의 공연을 위해 오디션을 보는 영상을 너무나 사랑한다. 또 2008년 저와 함께 미르얌 헬린(Mirjam Helin) 성악 콩쿠르에 참가하고 우승까지 거머쥔 성악가 심기환도 알고 지낸다."

Q. 당신이 내한공연하는 시점은 평창 동계올림픽 시즌이다. 4년 전에는 러시아에서 열렸다. 동계올림픽을 함께 즐길 계획이 있나?

A. "너무 멋지다! 전 스포츠를 좋아한다. 겨울도 사랑하고! 사할린에 쌓이던 눈을 잊을 수가 없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본 광경이다. 스키와 스케이트를 직접 타기도 하고 스키점프와 바이애슬론 경기를 참관하는 것도 너무 좋아한다! 올해 모스크바에서는 기록적인 눈이 내리기도 했다. 그 정도의 눈은 사할린에서밖에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눈이 많이 오면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나는데, 전 그런 요즘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한국의 관객 분들도 평화와 사랑의 음악으로 가득한 공연장 오셔서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다가올 일정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Q. 이번 시즌 콘서트 및 오페라, 레코딩 등 주요 계획은?

A. "이번 시즌은 제게 꽤나 책임감이 느껴진다. 루체른 부활절 음악제(Lucerne Eastser Festival)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러시아에서의 공연과 바로크 오페라 무대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협연과 시애틀, 멕시코에서의 해외 공연도 잡혀있다. 오페라 공연으로는 바이로이트 섭정국 오페라극장(Bayreuth Margröfliches Opernhaus)에서 하체의 오페라 시로에(Siroe)의 라오디체(Laodice)로 데뷔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함부르크에서의 헨델 '알치니'의 모르가나 역, 로지니 '세비야의 이발사'의 로지나 역도 맡는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3월 말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우리말로 깨달다]

정말 그만이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이제 이런 일은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속에서는 순간순간 이제 그랬으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이라는 말이 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을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만>이라는 말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은 그만이라는 말이 참 좋아서 며칠 동안을 설레었습니다. 오늘은 그만이라는 표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만>이라는 말은 그 정도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장면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이 의미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만하다>라는 말은 '하던 일을 그만 멈추다.'는 의미인데, 그 속에는 그 정도면 되었다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일을 그만하고 원다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물론 내 의지가 아닌데 그만하게 되었을 때는 답답함과 아쉬움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만하는 것에는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지나치게 일을 하는 경우, 쉬지 않고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남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해라'라는 표현의 느낌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살다보면 어느 정도면 될 때가 있습니다. 칭찬도 나무람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하지 말라는 말, 정지하라는 말, 세우라는 말을 '그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그만이라는 표현에서 만족을 봅니다. 단순히 멈추라는 의미나 끝을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말에서 그만은 그 정도면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장면에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을 좋은 의미로 보았으면 합니다.

누가 다쳤을 때도 우리는 <그만하기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친 사람 앞에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불행을 맞이한 사람에게 다행이라니요? 아마 이런 표현을 외국인에게 설명하면 이상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에게 그만하기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만하기 다행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긍정적인 세계관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행이 아닌 게 없습니다.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덜 나쁜 것이니 다행이지요. 우리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액땀>이라는 말도 합니다. 앞으로 닥칠 더 큰 액을 막아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액으로 때운 겁니다. 나쁜 일은 늘 더 큰 나쁜 일을 대비하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더 큰 일을 막게 되었다는 일종의 안심을 줍니다. 그만이라는 말에서 저는 안심의 미학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이다>라는 말은 끝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칭찬도 됩니다. '우리 사이는 이제 그만이야!'라고 하면 끝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맛이 그만이다, 경치가 그만이다, 사람이 그만이다'라는 말에서는 그 정도면 더 좋을 수 없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이 끝의 의미와 최고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는 점에서 역시 극과 극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나쁜 일은 그만 생겼으면 합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만하였으면 합니다. 미움도, 슬픔도, 아픔도 이제 그만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만하기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정말 그만인 곳에서 맛이 그만인 음식을 먹으며 기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정말 모든 게 그만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ризеры олимпиады приглашаются в летнюю школу, проводимую в Академгородке (Новосибирск),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бучения в которой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учебно-научный центр Новосиби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сесибирская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ая олимпиада школьников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 1962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академика М.А. Лаврентьева.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она успешно вошла в систему всесоюзных, а затем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олимпиад школьников. Начинаясь она как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ая, но со временем список предметов расширился. Сейчас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для учеников 7-11-х классов по математике, физике, химии, биологии и информатике.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получают преимущества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российские вуз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국제 북극곰의 날' 사할린에서도 기념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은 2월 27일-28일 양일간 '국제 북극곰의 날'을 기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을 초대한다.

교육프로그램에 북극곰들에 대한 강연에서는 북극곰의 외형과 구조적 특성, 동물의 모습, 북극곰의 종과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개체수의 보호 상태를 잊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북극곰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피가 많은 만큼 극한의 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강의를 듣는 방문객들은 사할린주에 서식하는 갈색곰들의 특성과 불곰과 만났을 때의 기본적인 안전대책법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박물관 측은 전했다.

문의정보와 사전 신청은 전화72-75-55.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отмет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полярного медведя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27 и 28 февраля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священ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полярного медвед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лекцию о белых медведях, на которой расскажут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строения, дадут описание внешнего вида животного, кратко охарактеризуют вид и популяцию, напомнят о статусе охраны эт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Также маленькие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узнать, насколько белые медведи умны и изобретательны и как им удается выживать в условиях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холода.

Кроме того, слушателей ожидает краткий рассказ о бурых медведях, обитаю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и об элементарной техн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случайной встрече с медведем, сообщает музей.

Справки 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заявки по телефону: 72-75-55.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 계약직원 채용 공고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함께 일할 여성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인원: 1명 (계약직)
2. 근무기간: 1년 (근무 실적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3. 계약 조건: 급여(면접 시 상세 안내), 본인 및 가족 항공권 지원(면접 시 상세 안내)
4. 기타 안내: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 우선 채용
5. 채용 절차: 이력서, 학력증명서 제출 및 면접 (면접자 중 우수자 채용)
6. 업무 내용: 예약 및 발권, 공항업무, 기타 지점 전반의 업무
7. 근무 장소: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라다 호텔 1층) 및 공항(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8. 연락처: 전화 722-001

e-mail alexei@flyasiana.com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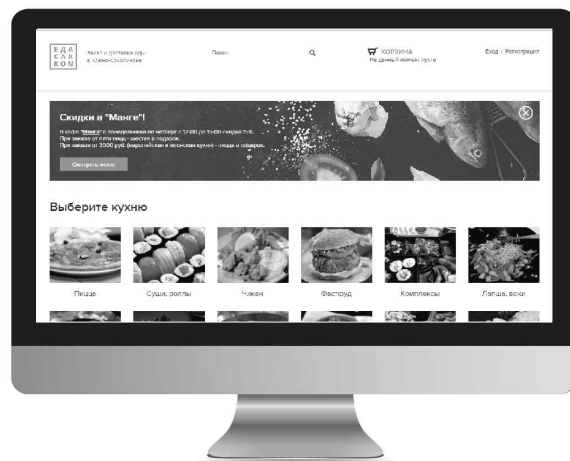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ть приложение

еда.сах.ком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г.(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